

# “野 초당적 협력 없으면 국민 외면 당할 것”

### 광주시의회, 지도부 결단 촉구

### 야당 간 탄핵 로드맵 갈등 비판

### “주말 전 단일안 내놓아야”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비선실세 국정농단’ 시국과 관련해 야당 지도부의 각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시작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야당이 한 달여 동안 간헐적으로 엇박자를 내온 데다, 대선을 의식한 일부 대권 후보들의 행보에 불만을 터트린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는 23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탄핵소추와 선출리선임을 놓고 벌어진 야당간 논쟁에 대해 야당 지도자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시의원들은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정한 야당이 구체적인 로드맵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견을 통합해야 한다. 야당의 분열은 국민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11월 촛불집회는 국민이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의 광장”이라며 “민주주의의 광장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야당 차원의 초당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야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당별로 열리는 공개회의에서 각자 목소리만 낼 것이 아니라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대면해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원들은 “26일 촛불집회 전까지 야당의 단일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야당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영남 대표위원과 국민의당 김민중 대표위원은 “과거 야당은 국민이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의 광장을 붕괴시키기도 했다”며 “그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고 야당 지도자들의 결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 시의원은 “국민들의 분노는 이미 치솟을대로 치솟았는데, 야당이 그런 민심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런 가운데 일부 야당 지도자들은 대권 후보 행보만 하는 꼴이 불성실하다는 지역민들의 여론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초당적인 협력을 하지 않으면, 또한번 보수 세력에게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상당하다”면서 “늦지 않게 야당의 초당적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양동시장 주차장 조성 무산 위기

### 토지 소유주 매매 거부

광주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양동시장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주차장 조성 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일부 토지 소유주가 매매를 거부하면서 광주시와 일선 구청이 어렵사리 확보한 전통시장 활성화용 국비 예산 수십억원도 날리게 됐다.

23일 광주시와 서구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지원의 하나로 서구 양동 경일로 시장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양동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 북개사가 건너편에 주차장을 만들어 이용자의 편의를 높여야 하는 취지다. 하지만 주차장 대상 부지 중 일부 토지 소유주가 높은 보상을 요구하면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

사업대상 25필지 중 5필지를 소유한 2명이 감정평가액의 1.5~2배를 요구하면서 매매 동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주체는 일선 구청으로 토지 소유주가 높은 보상을 요구하면서 토지 수용이 힘들게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의 총예산은 50억원으로 국비 30억원·시비 10억원·구비 10억원이 책정됐으나 지자체의 사업 포기에 따라 이중 확보한 국비 30억원도 쓸 수 없게 됐다.

서구청은 관련 기금 축소 등으로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 주차장 조성 사업이 아예 취소될 수 있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경남 시의원은 “양동시장 상인들의 숙원사업이 이렇게 무산된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권일기자 cki@



한일군사협정 조인식... 사진기자들 취재 거부 23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국방부 청사 로비에서 사진기자들이 국방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조인식 비공개방침에 항의, 카메라를 내려놓고 취재를 거부하고 있다. 항의하는 사진기자들 사이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조인식장으로 향하고 있다. 국방부는 협정조인식 사진을 제공키로 했으나 사진기자들의 공개요구에 반발, 나승룡 대변인실 공보과장은 ‘사진 제공도 하지마라’라는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는 등 기자들의 공분을 샀다. /연합뉴스

## 광주시·법무부, 구치소 부지 잠정 결정

### 옛 교도소 부지 ‘민주·인권·평화 콤플렉스’ 조성 탄력

옛 광주교도소 부지 무상 양여 문제로 지지부진했던 ‘민주·인권·평화 콤플렉스’(Complex·복합)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업 예정부지인 옛 광주교도소의 무상양여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부정적 기류가 여전히 남아 할 과제가 적지 않다.

23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광주시가 구치소 후보지 6곳을 제안했으며, 이 가운데 1곳을 잠정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무부도 무상양여 부분에 긍정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는 2012년 6월부터 법무부와 기획재정부에 교도소 이전부지의 무상양여 등을 요청했지만, 선결 조건인 구치소 대체 부지를 확정하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다.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19일 교도소가 문흥동에서 삼각동으로 이전한 이후 옛 교도소 부지는 1년째 활용하지 못한 채 방치됐다. 하지만, 정부 재산을 관리하는 기재부의 무상양여 불가 방침을 바꿔야 하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한편, 광주시는 광주 북구 문화동 옛 광주교도소(5·18 사적지 22호) 터에 2012년부터 민주·인권·평화 콤플렉스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민주인권평화센터, 인권교육센터, 세계인권미술관, 인권평화기념공원, 인권 유스호스텔 등을 세워 민주주의의 역사와 고증을 교육, 체험, 문화, 인권중심의 복합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교도소 부지 10만6000여㎡와 인접한 부지 등 모두 19만7000여㎡에 국비와 민자 1314억원을 투입해 예정대로라면 올해 착공해 2022년 완공할 계획이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영산강 따라 102km 자전거길 만든다... 주변 숲 조성 첫발

### 전남도,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

영산강변을 전남 대표 상징숲으로 조성하기 위한 ‘영산강 경관숲’ 사업이 첫 걸음을 뒀다. 영산강변에 100km가 넘는 자전거길도 만들어진다.

전남도는 23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조경·환경·생태·디자인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시민단체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산강 경관숲 조성’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영산강의 역사·문화 등 우수한 자원을 활용, ‘숲 속의 전남’ 만들기 대표 경관숲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특히 자전거 인구 1200만 시대를 맞아 102km에 달하는 자전거길을 조성해 관광자원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보고회에서는 영산강의 유·무형 자원, 자전거길 현황, 제방변 식재·시설물 현황, 국내외 유사사례, 관계법령 등을 검토, 사업 수행의 세부 방향을 제시했다. 전남도는 각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의 지속적 자문을 통해 영산강 숲 조성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마련하고, 사업 실현 가능성과 예산 확보 방안 등 종합적 검토를 거쳐 2017년 5월까지 기본계획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2021년까지 영산강 주변 314만5000ha, 136km에 경관 숲을 조성한다. 진중화 전남도 농업축산식품국장은 “영산강변 숲 조성을 통해 영산강 주변지역 생태적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전남을 대표하는 문화복지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영산강은 4대강의 하나로 북쪽으로는 담양에서부터 남쪽 목포까지 8개 시·군을 이어 흐른다. 영산강 8경, 영산강 종주자전거길, 영산강문화관 등 많은 경관자원이 강 주변에 흩어져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 AI 피해 보상금 2011년 이후 670억

### 올해 700억원 넘어설 듯

지난 2011년 이후 올해로 4년째 전남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인한 피해 보상금이 7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전남에서 3년간 피해보상금 670억원

을 집행했다.

올들어 지난 16일 해남 산란계 농장, 18일 무안 육용오리 농장에서 AI가 발생하면서 피해보상금은 조만간 7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3일 현재까지 6농가 7만4000마리를 살처분하면서 5억원 정도가 보상금 전망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 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